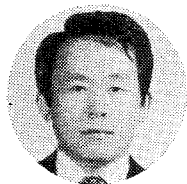


# 工業所有權出願·登録趨勢分析

## —1967~1976—

### — 企業의 技術選別導入을 위해 —



金 永 吉

<特許廳 審査官>

#### 1 出願分析의 必要性

出願이란 發明者나 考案者가 스스로 考案한 內容을 하나의 無體財產權으로서 保護를 받기 위하여 特許樣式에 맞추어서 特許廳長에게 提出하는 行爲를 말한다. 여기에는 發明·考案의 內容에 따라서 創作活動에 대한 努力의 補償을 要求하는 출원일 때 그 申請樣態에 따라서 通常 特許, 實用新案, 意匠出願으로 區分하고 있다. 또한 營業者의 營業行爲를 他營業者와의 誤認混同을 防止하며 他商品과의 識別을 容易하게 하고 營業上의 商標를 去來함으로써 쌓아올린 營業權(Good will)의 保護를 위하여 申請하는 行爲를 商標出願이라고 부르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特許制度下에서 通用되는 양태이며, 國家에 따라서는 創作者나 使用者 등의 保護를 그 國家의 特許제도의 目的 및 其他 法律의 性格에 따라서 出願內容의 保護方式은 多樣하다. 이러한 理由로 因하여 출원되는 內容은 各國의 特許제도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서 출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美國인이 출원한 發明이 그 內容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實用新案 정도의 技術思想밖에 되지 않는 事例가 許多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出願件數를 分析함에 있어서 出願分布나 比率를 例擧할 때에는 特許와 實用新案으로 分離하여 外國出願件數와 比較하게 되면 약간의 誤謬가 發生할 우려가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원된 출원件數를 위주로 분석하는 만큼 그에 대한 適切한 對應策이 없음을 認識하고 분석에 臨하고자 한다.

출원件數를 분석하는 데는 1967년 부터 1976년까지 10年間의 出願分을 抽出하여 使用하였으며 이에 대한 年度別 趨勢分析과 產業別 出願分布 등을 中心으로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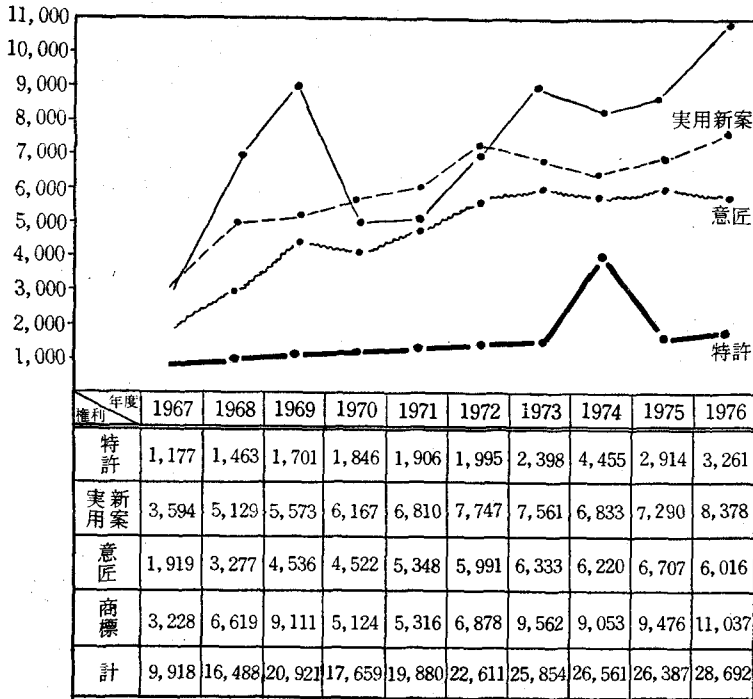
특허, 實用新案, 意匠, 商標를 國內外別로 時系列方式에 의하여 檢討함으로써 向後 關聯產業技術水準의 推移를 豫測하고 技術의 凝集現象을 알아보고자 이 題目을 擇하였다. 그러나 技術의 凝集現象이나 關聯産業 技術수준의 추이는 하나 하나의 出원내용에 따라 比較檢討되어야만 이 분석이 正確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出원내용은 秘密을 要하므로 出원件數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만큼 技術수준의 추이나 技術分布狀態 등의 解釋은 外形的이며 극히 皮相의 印象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출원과 企業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出원의 분석은 關聯産業間의 技術動向을 年度別로 어떻게 變動되고 있는가를 豫測하는데 必要한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技術이나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여 技術革新(Technical innovation)에 對應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관련된 公知의 技術情報과 새로운 技術정보가 要請되며, 이에 따른 效果의인 管理運營이 必要한 것이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技術개발에는 先行技術의 有無나 最新 研究動向의 분석 또는 技術的 評價 등을 探知하는 것은 이에 관련된 企業의 試行錯誤를 防止할 수 있으므로 研究時間, 研究費, 努力 등 經營의 效率의 側面에서 볼 때 매우 重要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技術을 導入하는 경우에도 技術도입이 工業所有權, 其他 技術의 讓受, 그 使用에 關한 權利 등에 대한 代價를 支拂하고 도입하는 특허, 노우하우, 技術정보, 技術指導 등이므로 公認소유권의 出원과 그 技術동향을 분석하고 理解해야만 先行技術의 存在 有無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技術導入先의 技術이 落後된 技術에 屬하는 지의 與否를 判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技術동향을 出원件數에 의하여 長期的으로 분석코저 產業別로 機械, 化學一般, 纖維, 電氣通信,

〈表 1〉 權利別 出願動向分析



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공업소유권의 출원현황은 각 産業部門別이나 연도별로 계속적인 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企業環境의 變化에 따라서는 급속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1947년부터 1976년까지 總出願件數는 270,896件이고 이들을 권리로 보면 특허가 32,387건으로 총출원건수의 11%, 실용신안이 85,113건으로 32%, 意匠은 57,622건으로 21%, 상표가 95,774건으로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內國人的 출원건수는 總 224,678건인데 그 중에서 특허가 20,739건, 실용신안이 83,432건, 意匠이 57,343건, 상표가 63,164건이고 총출원건수중에서 특허가 9%, 실용신안이 37%, 意匠이 25%, 상표가 29%의 比率로 되어 있다.

또한 外國人的 출원현황은 총 46,218건으로 특허가 4,648건, 실용신안이 1,681건, 意匠이 279건, 상표가

事務機器, 採鑛, 金屬, 飲料, 醫料衛生, 事務用品, 印刷, 殖産器具, 雜貨 등을 部門別로 出願現況을 분석하여 출원주이를 把握하고 또 출원의 傾向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關聯産業分野의 技術動向을 이해함으로써 企業經營方針 및 計劃樹立을 하는데 필요한 技術情報資料를 提供하고 이 분야의 關係人에게 技術의 變化 등을 출원분포에 의해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분석은 그 必要性이 加一層 要求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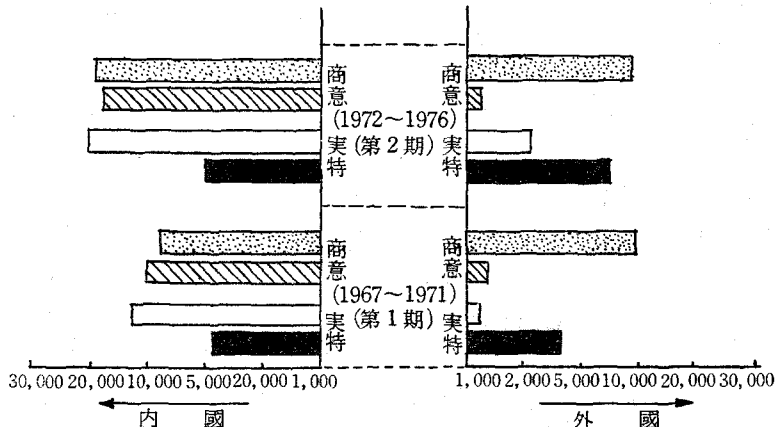
32,610건이며 총출원건수에 대한 비율은 특허가 10%, 실용신안이 3%, 意匠이 0.6%, 상표가 86.4%이다.

따라서 1947년부터 1976년까지의 총출원건수는 실용신안과 상표가 全體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發明은 주로 改良發明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工業所有權政策도 상표의 營業權에 의하여 販賣量을 確保하려 하고 있음을 統計分析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② 工業所有權의 出願現況

공업소유권은 通稱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商標權으로 分類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出願現況을 연도별, 권리별로 集計하고 다시 內國入 및 外國入의 출원현황을 區別하였다. 또한 産業別로 技術수준動向을 분석하기 위하여 출원현황을 集計하였고, 이들의 技術動向을 연도별로 분

〈表 2〉 內外國 權利別 出願分佈圖



— 6面に 계속 —

〈表 5〉

日本으로부터의 間接技術導入

導 入 技 術	技 術 開 發 國	技術開發國의 産業化年代	技術導入年度		技術移行遲延年數	
			日 本	韓 國	日 本	韓 國
1. 프로말린 製造技術	西 獨	1910	1940	1963	30	53
2. 印刷잉크 및 原料 製造技術	美 國	1930	1951	1972	21	42
3. 同軸케이בל 製造技術	"	1940	1952	1966	12	26
4. 鐵道車輛用 臺車의 製造技術	西 獨	1940	1960	1974	20	34

(註) 上記 技術은 모두 日本으로부터 導入하였음.

機能의 擴充을 圖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가 日本으로부터 낙후된 技術을 도입한 例가 적지 않았다는 것과 特許權을 核心으로한 最新技術의 도입이 적었다는 것이 모두 관련 技術의 축적이 未治한데 原因이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원천 技術의 선별도입과 관련 技術의 자체 개발은 技術進步의 同一싸이클을 形成한다. 한편 研究開發部署가 없고 技術 축적도 不足한 企業체에 있어서는 두가지 方案이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韓國科學技術研究所(KIST)를 비롯한 各 專門研究機關을 企業體 自身の 研究部署로서 활용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政府가 KIST 內에 設置運營하고 있는 「技術導入相談센터」를 활용하는 길이다. 도입 技術의 선별은 技術점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技術外的인 要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綜合的인 企業妥當性 調査를 根據로 해서 決定해야 한다. 그렇지만 技術評價가 선별의 基本이 되는 것이니 研究機關의 활용은 效率的인 방안이다.

기술도입상담센터는 設置된지 1년이 지났다. 이 센터는 企業家가 技術도입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 技術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有利한지에 대한 解答를 찾기 위한 상담과 斡旋을 맡는 機構이다. 이 센터는 技術도입에 參考가 될 各種 資料를 準備하고 있다. 먼저 第4次 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 新規로 國內生産이 展望되는 제품에 대해서 製造에 필요한 技術을 政府用役으로 KIST가 調査選定한 결과를 비롯해서 미국의 Dr. Dvorkvitz and Associates가 調査蓄積하고 있는 技術導入情報資料, 일본의 技術도입자료등을 保有하고 있다. 센터는 이들 자료와 各國의 特許情報 및 KIST가 關係를 맺고 있는 英國의 PERA(Production Engineering Research Association), 西獨의 Krupp 研究所, 미국의 Denver 연구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技術정보자료를 活用해서 각 企業체가 바라는 원천 技術, 適正技術의 도입에 필요한 支援을 提供하고 있다. \*

— 14面에서 계속 —

이러한 現象은 內外國人的 출원건수의 비율로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국인은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30% 정도가 많고 意匠과 상표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을 볼 때에 內國企業의 工業所有權政策의 方向은 基本發明에 대한 개량발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량발명을 意匠으로 보호하려고 努力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企業의 商標政策도 발명에 못지않게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인의 出願現象은 총출원건수의 86%가 상표에 置重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公業소유권정책은 특허출원과 상표의 출원에 96%정도까지 費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內國企業이 海外市場開拓을 위하여 외국에 商標를 輸出할 때에 많은 商標紛爭이 豫

想 될 것이며 輸出主導型인 內國經濟體制에 公業소유권의 役割이 점차 그 比重을 크게 차지 할 것으로 豫測된다.

특히 國家別出願件數의 順位가 日本, 西獨, 美國, 英國 및 프랑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全體國家中에서 65%가 되고 특히 日本의 出願比率은 65%중 41%를 占하고 있어 韓日間의 公業소유권문제는 앞으로 그 비중이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惹起되는 여러가지 現象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豫상 된다.

이 분석에서는 출원건수를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년부터 1976년까지 10年分을 抽出하여 第1期(1967~1971)와 第2期(1972~1976)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계 속〉